

第46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9月19日(火) 午後1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審査된案件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面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3時05分 開議)

○委員長代理 趙基燦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예산을 보다더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우리를 대표하고 손발이 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예산분야에 밝은 분으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저희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鈴基委員 구두호천제로 하시면 시간상 절약되고 여러가지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趙基燦 지금 김영기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이의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구두호천하여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두호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두호천제로하죠」하는 이 있음)

구두호천제로 하는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무기명투표로」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2인 이상 천거되는 경우에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어떤 분을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할 것인가 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鈴基委員 전에 동장출신인 김수영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많은 경륜과 이런 토대를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경륜이 있으리라고 보기에 김수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代理 趙基燦 방금 김영기위원님께서 부터 김수영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천거하실 분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신상발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시간이 아니죠」하는 이 있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동장이라는 자리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뒷바라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이라는 이런 거창한 것은 제가 조선인데 솔직히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입니다. 또한번 해보고 싶은 자리이고 그런데 이번만은 제가 사양을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장이라는 자리는 그때그때 구석 구석 조금씩 알아서 이렇게 생각못하시는 것을 옆에서 받쳐드리고 이렇게 하는 보좌 역할은 잘 할 수 있어도 큰 덩어리를 위에서 봐서 하는 것은 동장이, 저로서는 특히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고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趙基燦 지금 김수영위원님의 말씀은 겸양의 미덕을 발휘해서 지명된 위원장을 사양을 하시는데 너무 겸손이 지나치면 또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안계십니까?

○安敦洙委員 조위원님이 하시죠?

(「그것이 낫겠습니다」하는 이 많음)

○金壽榮委員 저도 그런 생각하고 말씀드릴 건데,

○委員長代理 趙基燦 사실은 저도 아닙니다.
(웃음소리)

(「박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安敦洙委員 여기는 박수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다면 여러위원들 계신데 조선위원장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저는 처음 재선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위원들께서 자꾸 재선 조선 그러시는데 우리 조위원장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으시니까 조위원장을 추천해서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鈴基委員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尹晚九委員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발의자가 좋습니다 하시면 안되죠. 발의를 하셨으면 김수영위원으로 발의를 했으니까 김수영위원이 일신상의 자기 신상보고발언만

했지 어떤 결론이 안났습니다. 난 다음에 대화가 되어야지, 무조건 좋습니다하면 어떻습니까? 붓 띄워놓고 그런 경우는 하시지 말고...

○金鈴基委員 아까 본인이 신상발언으로 굳이 사양하니까...

○尹晚九委員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정 안받아들이겠다면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즉 말해서 신상발언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이 김수영위원 좋다 그러면 좋은 것이죠.

○金鈴基委員 그러면 우선 김수영위원으로부터 신상발언으로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그 분이 굳이 사양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분의 사양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먼저 가결하고 넘어갑시다.

○鄭昌萬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영기위원님께서 추천을 했으니까 김영기위원이 그것을 취하를 시키시든지 본인의 발언을 취하시켜서 조기찬위원님을 안돈수위원님이 추천을 했으니까 발언하신 것을 취하를 시키세요, 그러면 조기찬위원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위원장님이 물어보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김영기위원님이 정식으로 추천을 취하시키든지.

○委員長代理 趙基燦 저도 감히 신상발언이라고 할까요, 변명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회 원이 구성되어서 조선, 재선이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 저는 사실상 이 말이 대단히 거북스럽고 대단히 모순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위원이 재선위원들 보다는 능력면에서 월등히 활동이나 경륜이 높은 분이 계시고 재선위원도 조선위원보다는 무슨 경력면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회의석상에서 재선이니 조선이니 하는 말은 의원 상호간에 위상이 손상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선발언, 재선발언을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김수영위원이 꼭 동장출신이라기 앞서서 경륜이라든가 해박한 행정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결위원장을 맡아도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김수영위원을 좀더 설득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는데 이해를 해서 다시 김수영위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安敦洙委員 그러면 두분이 다 신상발언하신거예요?

○委員長代理 趙基燦 예, 했습니다.

○安敦洙委員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사람은 취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추천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든가 한번만 하는 걸로 저는 ...

○金鈴基委員 그러면 조위원님이 신상발언에 사양과 동시에 김수영동장을 재청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趙基燦 예, 그렇습니다.

(「동장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하는 이 있음)

○金鈴基委員 재청발언이죠?

○委員長代理 趙基燦 예, 그렇습니다.

시간 가느니 위원님들 빨리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崔東煥委員 여러날 하는 것 아니고 추경 예산액도 많지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거명됐던 김수영위원을 하루하는 거니까 해서 투표고 뭐고 바로 통과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基燦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김수영위원의 달리 추천할 분이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수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수영위원님이 성북구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선출된 김수영위원장님에게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委員長 金壽榮 조기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책임의 막중함과 아울러서 한배를 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예산이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비록 힘든 일이 되겠지만 보람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실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님을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우리 정창만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정창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昌萬委員 위원장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지명권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壽榮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창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의있으시고 재청들어왔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깐 같이 옆에서 일을 해보니까 최동환위원이 저하고 손발이 맞을 것 같아서 최동환위원님을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있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동환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22分 散會)

○出席委員 15人

丘 在 永	尹 晚 丸	金 壽 榮
吳 榮 作	金 順 權	任 泰 根
金 鈴 基	鄭 昌 萬	朴 景 錫
趙 基 燦	朴 時 俊	崔 桂 洛
安 敦 洙	崔 東 煥	洪 性 濤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專 門 委 員	崔 石 根